

식품업종 기업을 위한 **K-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



식품업종 기업을 위한 K-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

1 식품 업종 상표 분쟁 현황

가. 관련기사	1
나. 분쟁 통계	4
다. 식품 업종 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기초	6

2 K-브랜드 침해 대응 매뉴얼

가.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및 사례	7
나. 무단선점 상표 대응 전략 및 사례	11

3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주요 상표 보호 지원사업 안내	16
나. 지식재산권 정보 사이트	18
다. 해외 상표 검색 사이트	18
라. 업무협약 체결 협회 사이트	19
마. 기타 지식재산 보호 관련 기관	19



가. 관련 기사

(1) 한국 제품 줄줄이 베낀 중국 짬통, 중국 법원서 한국 식품회사들에 졌다 (조선일보, 2023.05.25.)



중국 법원이 한국 식품을 모방해 '짬통'(가짜 상품) 조미료와 라면, 소금 등을 팔아온 중국 업체에 대해 “한국 식품 업체들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 식품 업체에 10만~20만위안(1868만~37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서 2021년 말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국내 식품 업체 4곳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짜 한국 식품을 만들어 판 태양초식품유한공사·정도식품유한공사를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내 개별 기업이 중국 현지 짬통 상품에 대해 행정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식품업체들이 공동으로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 소송을 벌여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법원은 '가짜 상품으로 현지 판매가 줄었다'는 한국 업체들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도 제품 포장을 유사하게 모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이하 생략)

< 중국의 한국 브랜드 도용 의심 사례 >



* 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3/05/25/SE4DH46JLFAO3LPTNE5IIU7JHM/)



(2) 한국 식품 흥내넌 중국 식료품에 중국 법원도 “그만 베껴” (KBS 뉴스 라인, 2023.05.26.)



라면과 조미료 등 한국 식료품을 베낀 ‘짜통’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이렇게 피해가 잇따르자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한국 업체 4곳이 중국 업체 2곳을 상대로 7건의 소송을 냈다. 이 상표와 디자인을 베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하였고, 최근 중국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중국 업체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승소를 발판 삼아 중국에서의 상표권 관리에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 출처 |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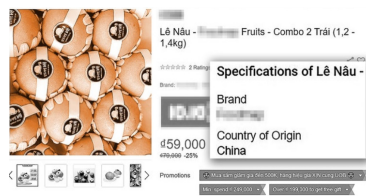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84854&ref=A>)



(3) 베트남 내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원산지 위조과일’ 주의 (베트남 국영방송 VTV, 2022.10.08.)



베트남 내 수입 과일 소매업체들이 중국산 배를 한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하노이 내 수입 과일 판매점에 진열된 다양한 종류의 배 상품 라벨에는 한국어가 적혀 있고, 판매원 역시 한국산 배로 안내하고 있었다. 판매가격은 1kg당 20만동(VND)이었으며, 상품명은 ‘배’라고 한국어로 적혀 있지만, 원산지는 ‘중국(made in China)’이라고 작게 표시돼 있었다. 상자 표기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중국산 배를 한국산으로 오인하고 비싼 값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하 생략)



* 출처 | 베트남 국영방송 VTV24.

(<https://vtv.vn/video/chuyen-dong-24h-toi-08-10-2022-582670.htm>)



(4) 식품 분야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 연간 300건 육박 (식품저널, 2023.07.24.)



식품 업종에서 한국기업의 고품질 이미지에 편승하기 위해 상표를 무단선점하는 경우가 연간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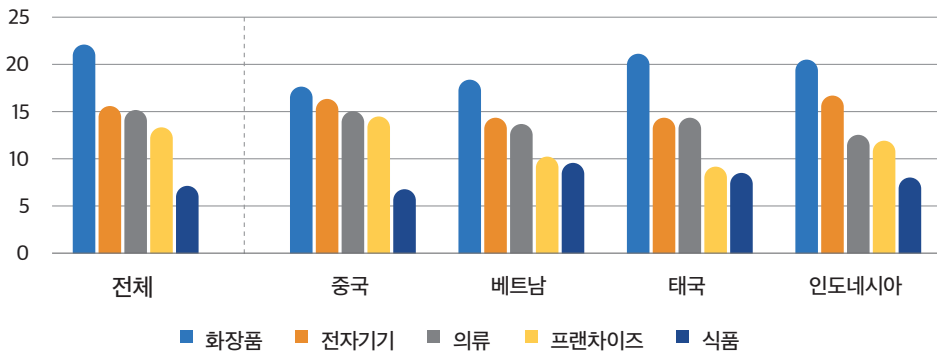
특허청이 중국 및 동남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19~'22 출원된 상표를 전수 조사해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비교분석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정보 수집 자료 1만5692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 분야 피해 상표는 연평균 297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였다.

기업규모별 한국 상표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는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컸고, 중견기업의 피해는 9.4%, 대기업은 8.2%였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원래 한국 상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하는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80% 이상)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27.4%로 높았다. 무단선점되는 한국 상표는 '영문 상표'가 전체 무단선점 피해상표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영문·한글 혼합 상표', '한글 상표' 등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의 피해도 25% 이상이었다.

특허청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상표 무단선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국에서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 상표 무단선점 현황 분석 결과 >



*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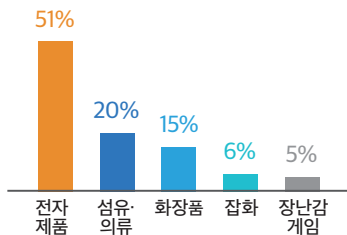
나. 분쟁 통계

(1)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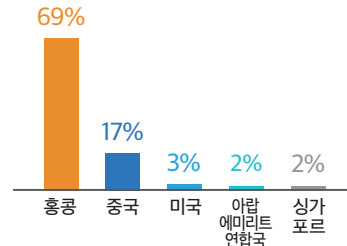


-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11.1조원, 2021년)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
-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으로 나타남
-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미국(3%), 아랍에미리트연합국(2%), 싱가포르(2%) 순으로 뒤따름

< 피해품목 >



< 유통 국가 >



-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부정적임



* 출처 |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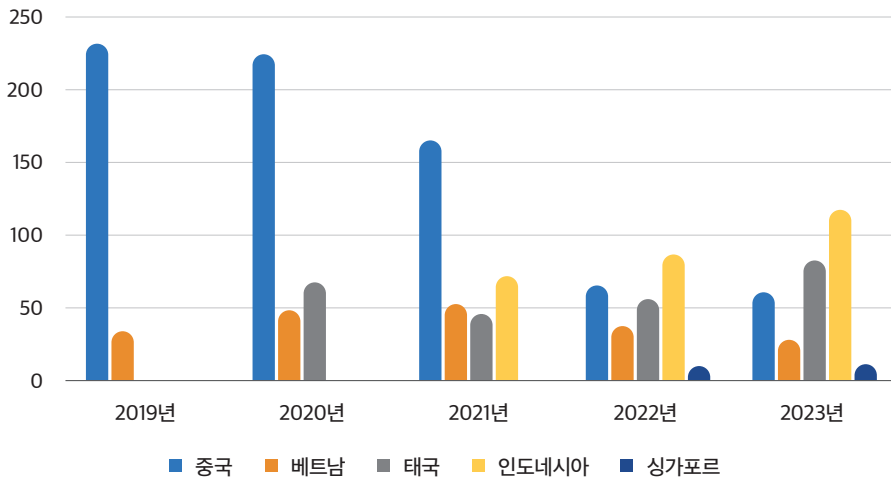


(2) 최근 5년간 식품 업종(29~33류) 무단선점 의심 상표 통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최근 5년간 중국 및 동남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국내 식품산업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무단선점 상표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슈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외 무단선점 의심 상표 정보조사 사업: K-브랜드의 무단선점을 저지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상표출원을 전수조사하고, 발견한 피침해사실을 기업에게 신속 안내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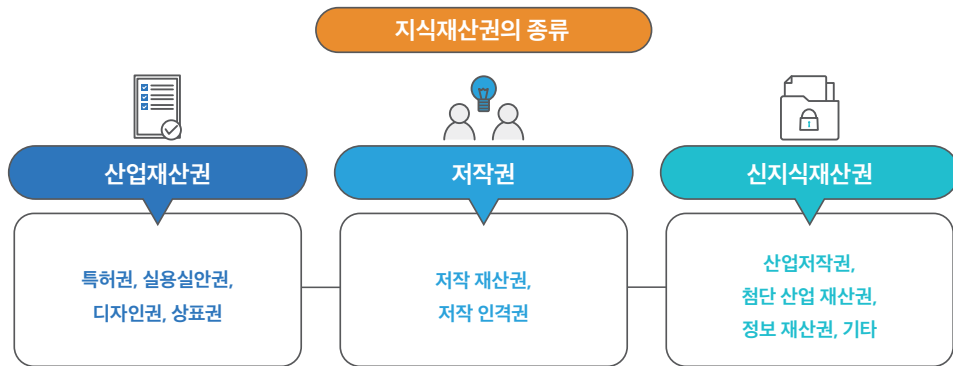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국	232	225	164	66	61
베트남	35	49	52	38	28
태국		68	47	56	83
인도네시아			74	87	118
싱가포르				11	13
합계	267	342	337	258	303

다. 식품 업종 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기초



(1) 지식재산권이란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식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 총칭



(2) 상표란

- 상표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

(3) 상표권 등록요건

-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아닌 것
- 보통명칭, 성질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아닌 것
- 기타 부등록 사유(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부정한 목적,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상표권 출원시 유의할 사항

- 실사용 상표와 대응되는 상표의 출원
- 적절한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 선택
- 해외출원 여부 및 해외출원 방식(개별국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검토

(5) 상표권 등록 후 유의할 사항

-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10년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필요
- 등록상표와 동일상표 사용으로, 불사용취소에 대비

(6) 상표권 침해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K-브랜드 침해 대응 매뉴얼

가.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및 사례

(1) 위조상품이란?

우리 기업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 짝퉁, 위조품, 모방품, 가품 등을 의미함

한국기업 제품		중국 모방제품	

*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71126635612528&mediaCodeNo=257&OutLnkChk=Y>)



(2) 위조상품 발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수출 예정 국가에서도 유통 중에 있으며, 이를 발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오프라인	온라인
1. 기업이 자사의 유통경로, 시장, 전시회 등 조사 2. 거래관계가 있는 대리점, 라이선시, 판매업자로부터 정보 입수 3. 위조상품 조사 전문업체나 로펌 등에 의뢰하여 침해조사 실시 4. 세관, 시장감독기관이 침해의심 물품을 발견하여 통지	1. 기업이 직접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2. 위조상품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3.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조상품 정보를 수령

(3) 위조상품 유통 대응

준비단계	지식재산권 확보	·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중요 ·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별도 권리 확보 필요 ·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준비
대응단계	증거수집 및 확보	· 위조상품 판매자 확인 및 필요한 정보 수집 · 위조상품 현물, 판매점 사진, 판매사이트 화면 캡처, 영수증 등 증거 확보 · 중국의 경우 수집 증거에 대한 공증(인터넷 화면 공증, 구매공증 등) 필요
	대응조치	· 상대방 권리 현황, 사용 여부, 자사 권리 확인, 공격 가능성 및 역공격 가능성 검토 · 국가별 제도 확인 후 대응전략 수립 · 대체로 경고장 발송, 행정단속, 민사·형사 소송 등의 조치 가능

(4)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의 위조상품 대응

-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요청(notice and takedown)'은 소송 등 타 대응조치 대비 간단하고 신속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발견한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를 통해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을 추천

<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대응 방법 >

○ 알리바바 계열 쇼핑몰

-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타오바오, 티몰, 티몰글로벌, 알리바바, 1688,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음
- IP Protection Platform(IPP)이라는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표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인정되면 침해의심자(피신청인)에게 포인트 공제, 링크 삭제, 온라인숍 폐점 등의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쇼피

-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과 대만, 브라질 등 12개국에 진출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 홈페이지 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사이트를 찾기가 어려우며, 구글에서 "shopee ip infringement"로 검색하여 사이트를 찾는 편이 용이함
- 상표권 침해 신고의 경우에는 위임장(상표권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등록증,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 자료와 현지 통화 기준 가격정보 (Shopee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해야 함



○ 아마존닷컴

- 미국, 유럽 등에서 1위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아마존 브랜드 등록 (Amazon Brand Registry)이라는 정책을 시행
- 이 정책에 따라 상표권자가 아마존닷컴에 상표권을 등록해 놓으면, 다른 판매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게재할 경우에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걸러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존닷컴에 신고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내에서 지식재산신고센터를 운영
- 동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서를 권리인증서류(상표권, 저작권), 위임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거나 개별상품 판매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음



식품 업종 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대응 사례



▶ 다수의 식품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공동 대응

1) 현황

K-food에 대한 전 세계적 열풍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위조·모조품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경우,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정교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이 광범위하여 기업 스스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애로가 발생. 이에, 국내 식품 업종 기업들은 효과적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조사를 실시

※ K-브랜드분쟁 대응 전략 사업: 수출(예정)중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협의체)별 맞춤형 전략 제공

* 식품 업종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상품, 형태모방 유통 등에 대응 중

2) 식품 업종 기업의 위조상품 공동대응 현황

조사 대상 지역과 제품은 참여기업별로 특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북경·광저우·산둥성·광둥성 등에서 유통 중인 라면, 양념 등의 위조상품 현황을 파악하였음. 총 2단계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현지 실태 파악, 증거수집 등 1단계 조사 결과를 통해 행정단속 등 2단계 대응 절차를 진행

1단계

- ① 제품별 단속 가능 권리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가이드 마련 ② 온라인 유통 위조의심 상품 샘플 구매
- ③ 샘플의 정품감정 후 판매처 현장조사 ④ 침해매장 조사 및 증거수집

2단계

- ① 침해 유형별 대응수단 분석 ② 위조상품 판매처 대상 행정단속 실시 ③ 단속 현장 및 위조품 촬영 등 단속 결과 보고서 확보 ④ 판매처에 대한 권리 침해여부 검토 및 경고장 발송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 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
삼양식품 CJ제일제당·대상·오뚜기, 협회와 공동 소송 제기



왼쪽은 삼양식품 정품, 오른쪽은 중국 작품 제품. 자료=한국식품산업협회

*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032277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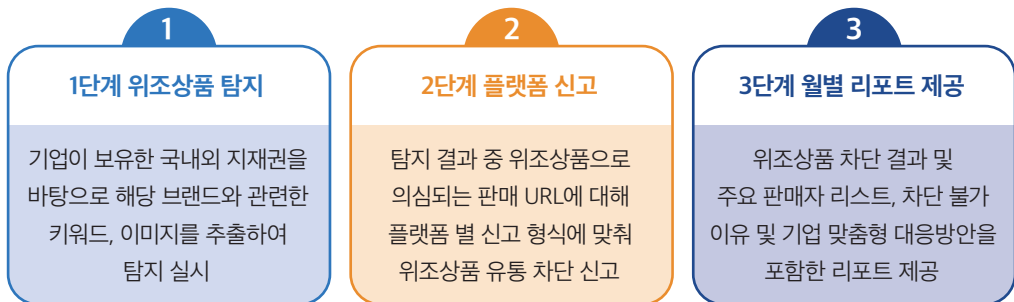
▶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 차단

1) 현황

- 국내 식품 기업 A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
- 특히 높은 품질과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던 와중 자사 제품과 포장, 제품명 등을 유사하게 모방한 저급 위조상품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기업 이미지 및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에 참여함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 등 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중인 우리기업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유통차단 및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 제시

2)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사업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효과

판매 게시물 차단, 행정단속, 경고장 발송 등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우리기업의 강경한 대응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조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정적 가격형성 및 품질 오인을 방지

나. 무단선점 상표 대응 전략 및 사례



(1) 무단선점 상표란?

- 국내기업이 먼저 출원·등록했거나 먼저 사용한 상표를 해외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

상표 무단선점 유형

- ① 상표 출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가로채 먼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 상표 브로커가 부정한 목적으로 가로채기 출원을 하는 경우 및 수입업자 등 관계자가 출원하는 경우도 있음
- ② 어떤 상품에 상표등록을 했는데 타인이 다른 상품에 상표를 출원한 경우
 -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의류(25류)에 상표출원을 했는데 제3자가 신발(25류), 가방, 핸드백(18류), 선글라스(9류) 등 다른 패션 관련 상품에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선점하는 경우
- ③ 어떤 상품에 상표등록을 했는데 타인이 그 상품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상표를 출원한 경우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화장품(3류)과 화장품판매업/광고업(35류)의 유사성이 인정되어 서로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나눠가질 수 없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화장품(3류)에 상표등록을 받았더라도 제3자가 화장품 관련 광고업(35류)에 등록을 받아 화장품의 판매나 광고를 방해할 수 있음

상표 무단선점 이유

- ① 상표권을 고가에 양도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상표 브로커)
- ②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방해하려는 경우(경쟁사)
- ③ 국내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자 등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한 경우
- ④ 한류 현상에 편승하려고 상표 또는 상품의 형태나 포장 디자인을 모방하는 경우
- ⑤ 당초에는 선의로 출원·등록을 했지만 계약 종료 등 사정변경이 있는데도 상표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합작법인, 수입업자)

(2) 무단선점 상표 발견

- 상표의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
- ① 기업이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② 국내 또는 해외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③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ip-navi.or.kr/kbrands)'에서 '선점의심 정보조회'활용

(3) 무단선점 상표 대응

-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대응방안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자사 상표권 확보 여부, 해당 국가 진출 시기, 상표 무단선점자 및 목적 등을 미리 파악하고 검토해 보아야 함



<출원·등록 절차 중의 무단 선점 대응 방안>



(4) 무단선점 상표 대응 조치 방안

○ 우선권주장 상표출원

- 조약상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면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부터 보호해 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
- 우리나라에서의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단선점 상표를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해당 국가에 상표출원을 하고 조약우선권을 주장함으로써 간단하게 문제 해결 가능

○ 정보제공

- 우리나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심사관에게 '무단선점 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 제출 가능

○ 이의신청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심사관이 상표출원을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출원의 내용을 공고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함(간혹 상표등록 후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음)
- 이의신청 기간은 대개 1~3개월로 짧은 편이므로 무단선점 상표를 발견하면 그 상표가 언제 출원공고 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함

<주요 국가별 대응 방안 추진 가능 여부>

구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정보제공	○	X	X	X	X	X	○	X
이의신청	○	○	○	○	○	○	○	○



○ 무효심판

- 상표등록 후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 청구가 가능
- 등록무효는 상표등록의 효력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임
- 국가마다 무효사유, 청구인 자격, 청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
 - * 특히 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해야 함

○ 취소심판

- 등록취소는 상표권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등록무효와 달리 소급적인 효력은 없음
- 대표적인 등록취소 사유는 상표등록 후 3년 내지 5년 이상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임
- 무단선점 상표는 상표를 사용하기보다는 매각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

○ 협상

-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사건에서는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해외에서의 분쟁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쉽지 않고 2~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상표 무단선점자를 대상으로 상표권의 이전 또는 포기 등에 대해 교섭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는 고액의 대가나 무상의 사용허락 등을 요구받을 수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며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

< 주요 국가별 대응 방안 추진 가능 여부 >

구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무효심판	○	○	○	○	○	○	○	○
취소심판	○	○	○	○	○	○	○	○

식품 업종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대응 사례



▶ 프랜차이즈 식품 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1

1) 현황

57개국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식품기업 A사는 가맹점 직원을 위한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중, 중국 내에서 A사 교육시설 관련 상표가 무단으로 출원된 상황 정보를 입수(무단선점 의심 상표 정보조사 사업을 통해 관련 정보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을 신청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협업체)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

2) 중국 내 상표 무단선점 대응

무단선점 상표 출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이며, 보유한 상표는 우리기업 A사 상표와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함. 이에, 출원 공고 중인 무단 선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양도 및 출원취하 협상과 행정단속을 동시 시도

이의신청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단선점 상표(제29, 43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제출하였으며, '무단선점자의 출원 목적이 악의적이며, 출원 표장에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표장의 상표명 전체 또는 일부가 단체 표장에 해당하나 출원인이 개인인 점은 중국 상표법 제10조에서 절대적 거절사유로 해당 상표 등록을 불허하는 점'을 강조한 결과 상표(43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승소함

협상

무단선점 상표의 등록을 조속히 소멸 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과 동시에 출원 취하 또는 무상양도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무단선점자로부터 무상양도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회신되어 협상이 결렬됨

*협상 시 기업이 노출될 경우 상표 무단선점자가 과도한 양도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익명으로 협상을 주도

행정단속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선점자의 상표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거절된 미등록 상표를 가게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행정 단속 요청을 위해 '상표불법사용'근거자료를 수집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출



▶ 프랜차이즈 식품 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2

1) 현황

반찬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기업 B사는 매장 및 판매 제품, 매장 외부에 보유 상표를 표기하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해외로 사업 확장을 계획하던 중 중국 내 무단 선등록 상표(29류, 30류)를 발견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을 신청

2) 무단 선등록 상표 취소 대응

중국 내 선등록 된 유사상표를 검토한 결과 총 3건의 상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악의적 출원 또는 부정당한 수단에 의한 상표출원'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다만, 1개 상표의 경우 불사용취소신청의 시기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표장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최종 승소 결정됨

불사용 취소심판

중국 대리인을 통해 대상 상표의 중국 내 사용여부 조사를 의뢰한 결과, 선등록 상표권자에 의한 대상 상표의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B사는 국내 및 중국 대리인과 상의를 통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 승소 결정됨



▶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업체에 의한 상표 침해 대응

1) 현황

퓨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국내기업 C사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의 수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던 중, C사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중국의 한 업체가 계약과 달리 C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후 이를 대응하고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을 신청

2) 관계자에 의한 상표 침해 대응

유사 상표를 무단 등록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표 뿐 아니라, C사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메뉴판, 메뉴 디자인 등을 그대로 도용하여 중국 내 1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함. 상표 침해 대응을 위해 유사 상표 무효화를 검토하였으나 관련법에 근거한 별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하는 경고장 발송

경고장 발송

우리기업 C사 보유 상표권 정보, 중국 상표법 규정 및 분쟁 상대사의 침해 행위, 침해 행위 중지 등 요구사항을 기재한 경고장 중문본 발송



상표 무단선점 대응 효과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청구, 경고장 발송, 협상 등의 대응 전략을 통해 우리 상표를 확보한 결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안전한 발판을 마련

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주요 상표 보호 지원사업 안내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산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협의체)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 기업 대응방식은 개별대응과 공동대응으로 나뉘며 개별대응은 분쟁발생 여부에 따라 분쟁대응 또는 권리보호 유형 중에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 등 전세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공합니다.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지원사업: 중국, 아세안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유통현황 모니터링 및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 교육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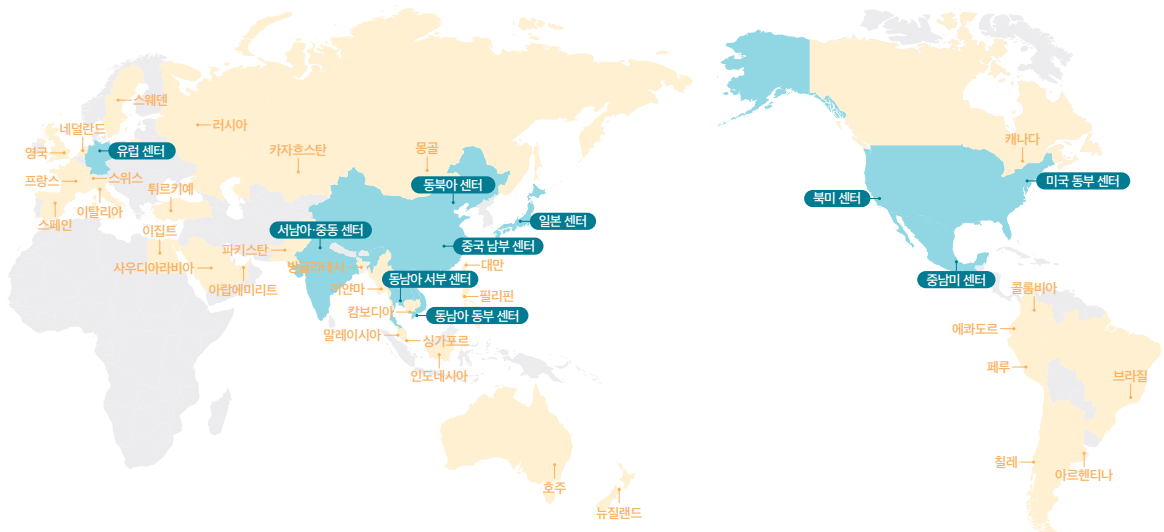
○ 해외 지식재산(IP)센터 운영

- 지재산 상담 : 해외 지재산 출원 방법, 현지 진출에 따른 지재산 분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에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여 참가 기업을 위한 현지 지재산 정보제공 및 현장에서의 지재산 분쟁에 대한 초동대응을 지원합니다.
- 해외 네트워크 구축 : 수출 기업의 지재산 보호를 위해 해외 현지 지재산 공무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한국 초청세미나와 같은 업무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 수출(예정)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산 침해물품 유통 대응, 해외기업과의 초기 지재산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 제공, 해외 기업과의 지재산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세관 지재산 등록 비용을 제공합니다.



권역	소재지	이메일	서비스 제공국가(지역)
북미IP센터	로스앤젤레스	la_ipcenter@koipa.re.kr	미국 서부, 캐나다
미국동부IP센터	워싱턴D.C	washington_ipcenter@koipa.re.kr	미국 동부
동북아IP센터	베이징	beijing_ipcenter@koipa.re.kr	중국 북부, 몽골
중국남부IP센터	광저우	guangzhou_ipcenter@koipa.re.kr	중국 남부(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일본IP센터	도쿄	tokyo_ipcenter@koipa.re.kr	일본
유럽IP센터	프랑크푸르트	frankfurt_ipcenter@koipa.re.kr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스웨덴, 러시아
동남아동부IP센터	호치민	hochiminh_ipcenter@koipa.re.kr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동남아서부IP센터	방콕	bangkok_ipcenter@koipa.re.kr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서남아-중동IP센터	뉴델리	newdelhi_ipcenter@koipa.re.kr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이집트
중남미IP센터	멕시코시티	mexicocity_ipcenter@koipa.re.kr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해외지식재산센터 지도



나. 지식재산권 정보 사이트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일일분쟁속보,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NPE 활동 동향 분석, 해외 지재권 정보 제공 등 해외 수출기업 및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사이트입니다.



○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해외진출(준비)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분쟁 모니터링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 소개까지 원스톱으로 한번에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K-브랜드 보호 포털

해외에서의 K-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및 해외 상표 무단선점 현황 및 대응 가이드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다. 해외 상표 검색 사이트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은 여러 국가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한곳에 모아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를 제공
-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확인을 위해서는 WIPO, EUIPO 사이트 검색 후, 상표 선점이 의심되는 국가의 상표검색 사이트 통해 상세한 검색 필요

국가	웹 링크
WIPO GBD	https://branddb.wipo.int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 137개국의 5,270여만 건 이상의 상표 정보를 제공
EUIPO TMview	https://www.tmdn.org/tmview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이 무료로 제공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
아세안 TMview	http://www.asean-tmview.org/tmview/welcome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의 상표 약 500만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국	http://wcjs.sbj.cnipa.gov.cn/txnT01.do
인도네시아	https://pdki-indonesia.dgip.go.id/
싱가포르	https://digitalhub.ipos.gov.sg/FAMN/eservice/IP4SG/MN_TmSimilarMarkSearch
태국	https://www.ipthailand.go.th/th/home.html
베트남	http://wipopublish.ipvietnam.gov.vn/wopublish-search/public/trademarks?2&query=*. *

라. 업무협약 체결 협회 사이트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or.kr/>



대한화장품협회

<https://kcia.or.kr/home/main/>



한국패션산업협회

<http://www.koreafashion.org/>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http://www.ikfa.or.kr/>



한국음악콘텐츠협회

<http://www.k-mca.or.kr/>



마. 기타 지식재산 보호 관련 기관

○ 관세청(www.customs.go.kr)

권리보호신고를 통해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 적발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으며 통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

수출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www.e-tipa.org)

무역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자와 국내외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자, 적법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조상품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통되는 K-브랜드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조폐공사 (www.komsco.com)

위변조 제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안 기술을 민간 기업에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로 브랜드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업종 기업을 위한
**K-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

